

다들 드디어 희망을

2018년 겨울호 No.137
www.womenfund.or.kr

창립 19주년기념 후원의 밤
현장스케치

기획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만나고 싶었습니다
송은아 님이 작은 도서관에서
만들어가는 '희망'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여성재단의 20주년을 기대하며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해경입니다. 2018년 지난해를 마무리하며 2019년 기해년 새해 첫 사립문을 엽니다.

2018년은 한국 여성운동사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낸 한 해였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가 각 분야로 확산되고, 불법촬영금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대형집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가 하면, '82년생 김지영'이 소설로서는 9년 만에 나온 밀리언 셀러가 되는 등 전 방위적 이변의 한 해였습니다. 2018년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젠더 감수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한 해, 한국여성운동의 지형 변화와 운동주체의 변화를 자명종처럼 경고해 준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2019년은 한국여성재단이 태어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모든 여성이 평등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126개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한마음이 되어 출범시킨 민간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은 '정의와 평등의 가치가 보편화되고 신뢰와 나눔, 보살핌 속에서 성별다양성이 존중되는 성평등 세상'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와 비전의 구현을 위하여, 20년 전 우리의 선배 여성운동의 '영웅'들께서 한국여성재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켜 한국여성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토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어 한국 유일의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으로서, 여성운동의 새로운 의제와 담론개발 노력과 함께 여성 활동가들과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곳곳에서 유리천장을 깨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운동의 발전을 견인하는 20년 전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한국여성운동의 지형과 운동주체의 변화는 한국사회를 포함한 전 지구적 탈근대, 탈산업화의 진행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20주년을 맞는 한국여성재단에게도 실로 깊고 새로운 성찰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여성재단 20주년을 비전과 미션, 목표와 전략, 조직과 기획, 사업과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시대적 정합성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해법과 혁신으로 앞으로의 20년, 아니 5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든든한 지원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W

이해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달들에게 희망을 2018년 겨울호 No.137

고사리손기부자 정지윤, 지민, 민주와 엄
마 송은아 님을 무악현대작은도서관에서
만났다. (사진: 이재현)

후원(한국여성재단)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Contents

02 사립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여성재단의 20주년을 기대하며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04 창립 19주년기념 후원의 밤 현장스케치

기획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 06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
- 08 이주분야 성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사업을 담당하며
- 09 스쿨미투가 학교를 바꾼다

11 이슈와 현장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 안주영 감독, 강양미 여성활동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 14 송은아 님이 작은 도서관에서 만들어가는 '희망'
- 16 투항나 대표의 멈추지 않는 '도전'

여성단체와 함께 뛰다

- 18 동시대, 여기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위하여_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 20 안전하고 든든한 이 문으로 들어오세요_전주성폭력예방치료센터

재단소식

- 22 재단활동 2018년 10~12월
- 24 기부자 명단 2018년 10~12월
- 26 수입과 지출 2018년 1~12월

창립19주년을 기념하는 만남과 공연, 나눔이야기 펼쳐



지난 12월 5일 저녁, 한국여성재단의 19주년 기념 후원의 밤이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날, 조형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이광희 부띠끄 대표 등 내외빈, 기부자, 파트너기업과 단체 등 170여 명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기부자들과 남성기부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고 참석자 대부분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행사에 참

여하여 감동을 더했다.

**이혜경 이사장의 성과보고,
후원의 밤을 찾아온 진선미 장관**



이혜경 이사장은 “2018년 한국사회가 경험한 미투운동의 확산과 소셜 ‘82년생 김지영’ 열풍은 비로소 젠더에 눈뜬 새로운 시

대를 알리는 자명종이 되어, 한국사회의 젠더 감수성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낼 것이라 믿지만 이에 대한 백래시 또한 만만치 않다. 지혜를 모으고 활동의 저변을 넓혀가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재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이숙진 차관이 장관을 대신하여 격려사를 전했다.

파트너단체들의 나눔스토리



올해 후원의 밤에는 특별히 파트너 단체들이 무대에 올라 재단과의 특별한 인연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최대의 핫이슈였던 디지털 성폭력 문제 해결의 중심에서 활동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2018년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연대체 구축사업을 위해 대만과 미국의 단체들을 만나는 등 해외에까지 활동을 넓혀 이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인천한부모가족센터>는 2014년 신생단체지원사업으로 사무실 보증금과 상근자 인건비를 마련하는 등 단체 출발의 종자돈을 마련했고, 2017년 ‘공간문화 개선지원사업’을 통해 따뜻한 공간을, 2018년도에는 ‘양육미혼모 지원사업’을 통해 미혼모가정의 자녀들이 자신감과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12월 29일 새롭게 발족하는 <한부모가족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진양혜, 손범수 부부홍보대사에게 감사패 전달



재단의 모금행사가 있을 때면 늘 사회자로 재능을 나누고 100인 기부릴레이에는 이끔이로, 진양혜손범수기금을 설치하여 꾸준히 기부해오고 있는 진양혜, 손범수 부부홍보대사에게 고마움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기업들의 물품후원, 경품 이벤트 진행



후원의 밤을 축하하는 기업들의 물품후원으로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경품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케아코리아가 후원한 기프트카드, 성산기획의 뮤지컬 티켓 등 총 10명에게 경품을 전달하여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후원의 밤을 추억하는 포토존 운영



행사장에는 후원의 밤을 추억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운영하였다. 관련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는 경우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였다. 식사시간에 진행된 포토제닉 시상식에서는 정지윤, 정지민, 정민주 자매, 이은경 님 가족, 노성진 노이주 부녀가 각각 수상했다. 특히 정지윤 자매는 이날 아시아친구들을 위해 생애 첫 기부의 감동을 참석자들과 함께 나누었고 노이주(서울국제학교 10학년)학생은 자원봉사활동과 100인 기부릴레이 이끔이로도 활동하는 등 여성재단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한겨울밤의 뮤지컬공연



19주년을 기념하는 축하무대에는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하고 있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이은율 교수와 유성재 교수가 <지킬앤하이드>와 <오페라의 유령> 등의 주제곡 공연으로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W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역사 이래 지속되어왔다. 전시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문자마폭력, 디지털성폭력까지 유형과 방식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처벌수위는 여전히 낮고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부족한 현실이다.

2018년 한국여성재단은 폭력의 대상인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365mc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에 3개 사업을 선정, 지원하였다.

디지털성폭력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다_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해 피해여성의 신상이 유출되고 온라인이라는 유통구조를 통해 쉽게 동영상 구매하는 디지털성폭력시스템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유통구조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 광범위하게 시장이 형성되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유통망으로 이용되는 대부분의 서버가 해외(미국)에 있음을 주목하였고 해외불법 포르노사이트 촬영물 유포 삭제 지원과 피해자지원 활동을 하는 해외 단체와 연대를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 유포자를 처벌하는 연방법 Enough Act 통과를 요구하는 서명작업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재 미국에는 35개 주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이 있지만, 연방법이 없는 탓에 한국 경찰이 수사 공조를 요청해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라_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의 성폭력실태조사와 간담회, 이주민을 위한 성·인권 가이드라인은 애초 5개 국어로 제작 배포될 예정이었으나 수요가 많아 12개국으로 늘려 발간되었다.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원교육과 사례발굴과 대안마련까지 이주여성인권보

호활동을 하는 전국의 기관과 단체(쉼터, 상담소, 활동가들)들과 함께 진행된 거대프로젝트였다. 이주여성들의 피해사례를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알기는 쉽지 않다. 무국적 이주여성의 경우 체류를 위해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성폭력피해 이주여성 실태조사 간담회를 통해, 관련 이주민 지원기관과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5개 사례를 지원했다. 이는 정부에서 놓친 성폭력피해 사례를 지원하는 NGO 영역이 활발히 활동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젠더폭력 피해자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성찰이 필요하다_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의심에서 지지로, 함께 하는 성문화운동>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개인은 일상에서 어떤 성찰이 필요한지를 묻고 채워가는 사업이었다. 피해자에게 향하는 의심의 방향을 가해자에게 되돌리고, 피해자와의 연대와 지지가 더욱더 필요함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직장 내 성폭력을 말하다>는 성폭력 피해자와 지지자가 모여 성폭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해



사진제공 한국성폭력상담소

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각 노동현장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며 해결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열린 포럼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는 명예훼손, 무고 등 보복성 역고소 문제와 성폭력 가해자 변호사 시장의 상업화로 인해 야기되는 2차 피해 문제 등을 알리고 바로잡고자 하였다. 또한, 지난 11월 3일 하자센터 하하히허홀에서 진행된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생존자의 자리 EVERYWHERE>는 성폭력 생존자가 말하기 참여자로서 자신의 삶과 경험을 세상에 말하고, 듣기 참여자가 공감하고 지지, 연대하는 자리로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울림을 주는 장이었다.

사업담당자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박아름 활동가는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10대~50대, 여성, 남성, 성 소수자, 장애인, 비혼모, 이혼경험자, 학생, 직장인, 예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참여자가 함께 성폭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상상했다.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의 주변인, 조력인, 범조인, 일반 시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2018년은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말하기로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Me Too 운동이 활발하게 이어져, 그 어느 때보다도 대중 사이에서 성폭력에 관한 관심이 높고 개인의 인식 차이가 크게 부딪치는 시기였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많고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인식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에 분노하고 반박하고 피해자에게 공감·연대하는 지지자도 늘어나 서로 용기와 지혜를 나누며 성폭력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공감·연대하는 든든한 지지망을 형성하기 위한 <의심에서 지지로> 사업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므로 계속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W**

이주분야 성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사업을 담당하며

성폭력과 가정폭력. 저에게는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상담, 통번역,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자녀 인권증진 활동을 한 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주여성 한사람만을 상담하고 지원해서는 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주여성은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가족을 만들지만 그 가족 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폭력에 노출됩니다.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살기도 하고 한 겨울에도 눈 받 한 가운데서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2016년 센터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한 연구에서 농업분야의 이주여성 노동자 2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2.4%가 성폭력피해 경험이 있고 가해자 중에 64%가 한국인 고용주와 관리자였습니다. 유학생, 미등록인지 등록자인지 즉 체류권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고 때로는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주분야 성폭력예방과 성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주여성들의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와 발굴된 사례의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3월 9일, 이주여성들의 #Me Too를 진행하고 성폭력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이주여성 활동가가 사례를 발표하며 직



사진제공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접 목소리를 낼 수 있던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정부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간담회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영어,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총 5개 언어를 포함하며 방글라데시, 태국, 몽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등 12개 국어로 다국어 성·인권노트를 발간하여 이주민에게 배포하고 찾아가는 강의활동을 했습니다. 이주민이 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실시하여 11명이 수료했습니다. 전국의 이주여성 활동가 40여명과 함께 1박 2일 동안 성폭력 현황과 실태, 지원, 제도적 개선 등을 토의를 했습니다. 연말에는 이주분야 성폭력사례 발굴 워크숍을 통해 조사된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익변호사를 초대해 한국과 미국의 젠더폭력 상황과 체류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담당자로서 저는 이주여성의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 성폭력 피해 예방 자료 제작, 토론회 섭외 및 실행 등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고 힘들었지만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주여성의 인권 활동에 동참하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과 한국여성재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W**

글 레티마이투(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스쿨미투가 학교를 바꾼다



사진제공 인천여성민우회

2018년은 한국사회 여성들이 미투 Me Too로 함께 분노하고 위드유 With You로 하나된 해였다. 예술계, 학계, 학교 등 사회 전반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2016년 강남역 사건이후 여성에게 가해지는 무차별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개최된 좌담회를 수시지원하였다. 2018년 미투 역시 우리사회 성평등 확산을 위한 주요 이슈임을 목도하고 지난 4월, 미투기금을 설립, 모금을 진행하였다. 미투운동활성화와 성폭력피해자지원 분야로 나뉘어 ①성폭력생존자 일상회복프로

젝트 '생존키트', ②이주여성들의 Me Too :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지원 Up, ③인천의 10대 여성들의 스쿨미투 집중워크숍 및 안내서 제작기<우리의 용기가 학교를 바꾼다>, ④성평등 사회를 향한 끝없는 외침, '우리는 달라지고 있다 Action', ⑤성폭력 예방과 미투운동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이주여성상담소 비움> 등 5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 중 <우리의 용기가 학교를 바꾼다>는 인천지역 9개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미투를 지지하고 공론화하는 프로젝트로, 인천여성민우회와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랄라, 인천페미액션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12월 20일, 대표단체인 인천민우회의 문지혜 활동가를 만나 활동얘기를 나누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인가?

인천에 9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올해만 9개 학교에서 미투가 일어났다. 학교는 워낙 고립된 곳이고 내부 고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 안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기 어렵다. 저희도 언론에서 다른 기사를 보고 알았다. 학교의 성차별 성폭력을 고발하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에 같은 지역에 있는 페미니스트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용기를 주고 싶었다.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미투 운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활동을 담은 일종의 스킴미투매뉴얼을 자료집과 영상, 음성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미투를 진행하고 있나?

학교와 교육청의 해결방식은?

스쿨미투는 대부분 SNS를 통해 알려지고 활동공유를 한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나 게시판에 포스트잇 액션을 한다. 서울의 용화여고가 좋은 사례가 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미투 이후 교사나 학생이 2차 가해를 하기도 한다. 포스트잇을 떼면 벌점을 감해주겠다고 학생간 갈등을 조장하는 교사도 있다. 학교에서 발행하는 성폭력예방에 관한 가정통신문은 몸조심해라, 빈집에 단들이 있지 마라, 평소에 자기주장을 명확히 해라, 위기 상황에 큰소리를 지르라 등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투의 내용들이다. 학부모도 자녀가 입시에 피해를 받을까봐 대부분 해당교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길 바랄 뿐이다. 학교의 대처방식을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비상대책위의 성문화센터가 중심이 되어 미투가 일어난 학교의 피해자, 가해자에게 각각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학교도 있다. 어떤 학교는 미투가 남녀 학생들의 갈등으로까지 번져 학교만

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여성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인천여성연대 등 단체들은 교육감 면담 후, 민·관이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미투가 일어나면 미투 전담 장학사가 바로 전수조사를 하고 학교장, 교사, 학생들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을 컨설팅한다.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보통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데, 학교생활중인 아이들을 불러내 이중삼중으로 조사를 하는 등 보호를 받지 못했다. 결국 해바라기아동센터의 도움을 받아 인천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피해자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미투는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사이에서도 일어난다. 학생들 사이는 불법동영상 촬영이나 성희롱, 성차별 같은 것이다. 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과 후, 학교구성원들이 학교문화를 바꾸어가는 노력으로 해결을 한다. 교사의 경우,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해결은 우선 진심이 담긴 사과다. 하지만 교사는 사실로 판결이 나면 사과하겠다는 태도여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다. 학생들을 상대로 역고소를 하기도 한다.

최근 진행상황은?

학부모 집담회를 개최했다. 학부모들이 스쿨미투 해결사례를 발표했다. 학부모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전수조사를 했다. 이일로 학생들이 성적이나 생활기록부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학교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등 빠르게 해결됐다. 12월 27일에는 인천민우회와 페미액션 등 여성단체들이 구월동 로테오광장에서 1차 인천스쿨집회 <스쿨미투가 학교를 바꾼다>를 개최한다.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될 것이다. W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은 이름 그대로 자신의 성장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처음 시작되었다. 올해로 61명의 풀뿌리활동가와 예술인을 지원했다. 대부분 단체 프로젝트를 선정, 지원하였던 여성재단은 시야를 확장하여 활동하는 ‘사람’에 주목하였던 바, 이들이 생계를 위해 성장과 변화를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하고자 했다.

2018년 선정된 분들 중 일상의 여성문제를 이슈화하여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여성활동가와 문화예술 영역에서 여성주의 지평을 확산하고 있는 여성예술인 각각 한 명씩 선정, 한 해 활동을 소개하고 이 사업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문화예술인분야 지원 :

<보희와 녹양> 연출한 안주영 감독



지난 12월 1일, 서울독립영화제 장편경쟁부문에 초청된 <보희와 녹양>이 상영되었다. 지난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으로 관객에게 처음으로 선보인 이 작품은 KTH상을 수상하며 관객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

다. 영화제가 끝나고 난 후 안주영 감독과 영화 이야기를 나누었다. “독립영화라서 조금 무거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발랄하고 밝고 경쾌한 느낌의 영화여서 그랬는지 반응이 좋았어요.”

<보희와 녹양 A BOY AND SUNGREEN 2018>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를 찾아가는 보희와 그의 친구 녹양의 로드무비형식의 영화다. “제가 그 시절, 많이 외롭기도 했고, 제대로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 즐겁게 주변과 소통하며 노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시시콜콜 떠들고 몰려다니는 또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요.”

그 느슨하고 말랑말랑한 영화 안에서 안 감독은 약간의 전복을 시도했다. 전형적이지 않은 가족의 모습, ‘가족’이라기보다는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성역할 등을 무겁지 않게 표현해냈다. 첫 장편이기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작품을 마무리해야 하는 탓에 절대적으로 작업에 집중해야 했다. 마침 여성재단의 지원으로 마무리단계의 영화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작지원이 원만하지 않으면 작업하면서 일을 병행하게 되고 결국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작업이 되어버리거든요.” 어릴 적 아빠와 함께 영화관을 드나들던 그는 영화와 상관없는 학과에 진학했지만 계속 영화 주변을 어슬렁거렸고 ‘영화 한편이라도 찍고 죽자’ 하고 영상공부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리고 단편작업을 해오다 이번 <보희와 녹양>으로 첫 장편을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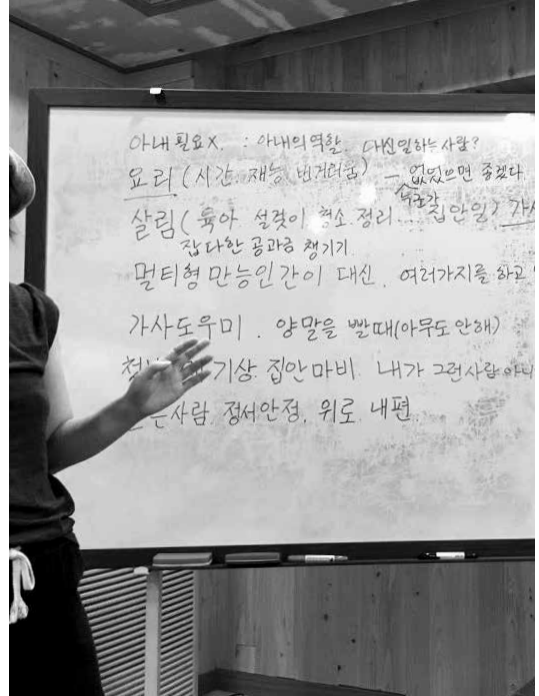
의외로 그가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는 SF라고 한다. 제대로 만들려면 많은 제작비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높은 제작비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흥행감독이 되기 역시 쉽지 않다. “여성감독은 멜로, 남성감독은 SF라는 선입견이 있다. 들여다보면 여성감독에게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적은 멜로나 드라마 장르에 몰려있는 거다. 여성감독이라서 더 섬세하거나 감수성이 높은 건 아니다.”

영화계 역시 올해 미투운동이 불어 닥쳤다. “영화제작 현장은 이미 여성들이 많고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 요원하다. 현장 분위기의 변화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요즘 중고등학교에 수업을 하러 가곤 하는데, 학생들은 확실히 ‘그건 아니지 않나요’ 라며 의문을 제기해요. 미세하지만 의식의 변화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제작기간 동안에도 영화인으로서 미투를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한 그의 노력 역시 느낄 수 있었다. <보희와 녹양>이 내년 2019년에 개봉관을 찾아 더욱 많은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역시 마지막 인사로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분야의 여성문화예술인에 대한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풀뿌리분야 지원 :

강양미 여성활동가, 여성주의를 삶의 무기로!



터미널에 마중 나온 강양미 님과 함께 눈 내린 무주읍을 걷다가 눈에 띈 카페에 들어갔다. 이번 무주에 어떻게 내려오게 되었냐는 첫 질문은 쉽고 짧게 답할 만한 것이 아니어서 내심 미안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곳으로 오게 된 배경과 커리어 쌓인 고민들을 곁들여가며 서울에서의 삶을 천천히 조곤조곤 들려주었다. 부산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 그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그의 눈으로 목도하기도 했다. 서울에 올라와서는 비정규직 여성들이 많은 곳에서 일도 하고 여성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싶어 NGO에서 활동가로도 일했다.

상암동의 거대 유통업체의 장기파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는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노

동이 삶을 지배하는 일상에 지쳐갔다. 몸과 마음을 다해 노동현장을 응원하던 찬란한 때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지역활동가로 있으면서 노동과 삶에 대해 고민하던 중 텃밭도 일구고 직접 만들어 쓰는 진짜 노동의 맛을 알아갔다. 직접 술도 빚고 아토피를 치유할 겸 화장품도 만들어 썼다. 생활자급 자족의 능력과 자신감이 생기니 굳이 서울에서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마침 공부방 하는 친구가 이곳 무주로 이끌어주었다. 그가 사는 곳은 야트막한 산들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다.

이곳에서 주변의 귀농, 귀촌한 이들과 함께 여성주의모임을 시작한 건 불과 2년 전이다. 내려와 살면서 그는 마음에 걸렸던 것이 있었다. 여성들은 우울해보이고 마을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혐오와 차별이 느껴졌다.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누던 이들은 “그럼 내가 말하는 여성주의, 그거 공부해보자”라고 거들었다.

“한가하면 일주일에 한번, 조금 바쁘면 2~3주에 한 번씩 친구가 사는 마을의 작은도서관에서 틈틈이 여성주의 세미나와 노동인권교육, 영화감상을 했어요.” 그가 사는 곳에는 도서관 같은 공공건물이 없다고 아쉬워하며 부동산, 교통, 문화도 ‘공공재’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더 많아져야한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늘 필요성을 전한다고 한다. 그러면 뭔가 도모할 수 있는 일들과 기회가 찾아온다고 믿고 있다.

서울에서 임금노동자로 월급을 받고 살 때, 그는 다른 것은 도통 할 줄 모르는 단순 노동자였다. 지금은 일상의 삶과 연결된 노동을 함으로써 삶

전체가 풍요로워졌다. 그는 모든 ‘물건’이 단정한 가지 쓰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양한 형태와 용도로 그 쓰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그는 오줌을 모아 거름으로 쓴다).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리하여 탄생한 물건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현재 유랑공방을 통해 천연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텃밭을 일구고 그의 집을 방문하는 이에게 직접 만든 최고급 에일맥주를 대접한다. 향후 생활기술학교를 이곳에서 운영해보고 싶은 꿈이 있다.

올해로 여성주의 세미나를 진행한지 두해가 되었다. 여성주의를 배우며 감수성과 관점을 키워던 작년에 이어 올해는 여성으로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했다. 각자 자신의 삶의 서사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한 여성은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했던 둘째 딸과 이번에 화해를 했다. 최근 둘째 딸이 이별폭력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엄마는 “네 잘못이 아니야”라며 딸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었다. 같은 여성으로서 격려해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다고 기억했다.

마지막으로 강양미 님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만나게 된 분들이 너무 든든하다고 했다. 함께 이곳에서 페미니즘을 통해 위계와 편견 없는 공동체를 꿈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W**

송은아 님이 작은 도서관에서 만들어가는 '희망'

12월 5일, 창립 19주년 기념 후원의 밤,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무대에 오른 세 자매가 있었다. 정지윤(9세), 지민(7세), 민주(5세)는 행사 이벤트인 포토존 촬영으로 포토제닉상을 받고 여성재단에 생애 첫 기부도 했다. 엄마 송은아 님과 아이들이 사는 무악현대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에서 이들을 다시 만났다.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다

1층 관리실 옆에 자리한 작은 도서관에서 지민이와 민주, 송은아 님을 만날 수 있었다. 두 아이는 곧 학교에서 돌아올 큰언니 지윤이를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 펼친다. 송은아 님은 무악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자 작은 도서관 운영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아파트 내 주민 김은하 님(한국여성재단 고사리손기금 설립자)과 10년 전 지어졌지만 방치되었던 이곳 무악현대작은도서관을 다시 멋지게 탈바꿈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은하 선생님 덕분이지요.” 이사할 때 고려대상 1순위가 도서관이었던 그는 이곳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근처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주말을 보내곤 했다. 아파트주민의 도서관 얘기에 너무 설렘. 지난 8월 도서관 운영위가 결정되고 3개월여 준비 끝에 11월17일, 재개관을 했다.

재개관을 위한 준비도 만만치 않았다. 주민들의 재능 나눔과 자원봉사도 한몫을 했다. “우선 1천여 권이 넘는 책들을 살펴보고 읽을 만한 책들을 분류해내는 작업은 거의 김은하 선생님이 하셨어요. 기존에 석면으로 되어있던 천장의 마감재를 교체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맞는 높이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의자는 조립식을 구매했는데 지윤이가 직접 조립을 해서 완성시켰어요.” 도서관에서 운영할 프로그램 조사를 위해 다른 도서관에 가보기도 하고 외부에서도 도서관검색과 대출현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도 계획 중이다.

“도서관은 아이들끼리 어울리며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사진 이재현

생각해요. 게다가 1층이라 층간소음 걱정도 없어요.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소모임도 하고 게시물을 만들 때도 누가 지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주체적으로 하려고 해요. 우린 늘 소비자의 입장이 익숙했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니만큼 모두가 주인의식이 필요하지요.”

마침 이날은 도서관운영비 마련을 위한 행사가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장미허브를 나눠주고 기부를 받기로 한 것. 안내방송이 나간 후, 부쩍 방문객이 늘었다. 도서관을 둘러보며 책은 대여가 가능한지, 운영시간 등을 물었다. 콘크리트건물들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서 오가는 대화를 듣노라니 송은아 님이 느꼈던 설렘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됐다.

여성재단에 생애 첫 기부한 세 자매들

마침 도서관 문을 열고, 두 동생들이 기다리던 언니 지윤이가 들어섰다. 지윤이와 지민, 민주는 지난 12월 5일, 한국여성재단 후원의 밤에 포토제닉상을 수상하며 무대에 올랐고 생애 첫 기부도 했다. 무대에 오른 느낌을 묻자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그런데 그날 기부한 돈이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고사리손기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어요.”라고 씩스러워했다.

지윤이는 책을 분류하고 의자를 조립하며 재개관에 한몫을 톡톡히 해냈고 개관 후에도 수시로 와서 책도 읽고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다. “함께 도서관 준비를 해온 김은하 선생님을 통해 한국여성재단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후원의 밤에도 아이들과 참석을 했지요. 아이들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고 저도 딸이 셋이다 보니 여성으로서 멋진 롤 모델을 만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유리천장이 아니라 콘크리트 천장 같았던 워킹맘 시절

‘여성’이야기를 하다가 송은아 님은 워킹맘으로 지내온 지난 10년을 떠올렸다. “셋째를 임신하고서는 도저히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동안 브랜드컨설팅업계에서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냈지만 이 업계에서 임신과 출산 후 일을 계속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저는 사장님이 여성외국인이라는 것이 도움이 되었던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유리천장이 아니라 콘크리트천장 같다고 할까요.” 육아독립군으로 큰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하면서 둘째 아이를 연이어 갖게 되었을 때 몸에 이상이 느껴졌고 결국에는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느꼈던 상실감과 죄책감은 아직까지도 마음에서 지우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회사를 다니면서 지역구에서 보육정책위원으로 활동했다. 셋째를 낳고는 조리원동기들 20명 정도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육아정보도 나누었다. 아이들의 집중육아기간은 그의 커리어를 잃게 했지만 사회에 대한 스펙트럼은 한층 넓어졌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이 면역력 있는 사람 - 많은 경험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세상을 넓게 바라볼 줄 아는 -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가 세상에 어떻게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문장 같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 이 작은 도서관에서 펼쳐지고 있다. 엄마가 책 읽는 소리, 아이들이 책 읽으며 얘기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W**

고사리손기부는 김은하기금과 어린이들 이름의 기부금을 모아 아시아(네팔, 필리핀)와 아프리카(남수단) 어린이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방글라데시 먼 외곽, 시멀리아 마을의 성안토니오학교의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투항나 대표의 멈추지 않는 ‘도전’

10년 전만 해도 제가 옷을 만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혹시 원래 옷 만드는 것이 꿈이었냐는 질문에 투항나님은 단호히 ‘아니오’ 라고 말했다. 결혼 전 베트남에서조차 한 번도 재봉틀 앞에 앉아 본 적 없었다고 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작은 평수나마 가게 사장이 되었다. 국비로 양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함께 등록한 친구들은 고향에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는 이들이었지만 그에게는 국제결혼으로 오게 된 한국만큼 새로운 세계였다.

그 당시 국제결혼이 흔하던 때가 아니었기에 하노이에 있는 가족들은 처음 투항나님이 한국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의아해했다. 한국에 정착한 지 10여년, 한국어를 듣는 것은 익숙하지만 말하는 것은 아직도 어색하기만 하다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인 두 딸, 남편과 살고 있는 그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까하여 시작한 것이 양재교육이었다. 단 6개월 만에 그는 양장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직업전문학교 보조강사로 취직했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다. “운 좋게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용기도 주시고요. 너무 감사하지요. 직장도 추천해주시고 각종 기능대회 의상디자인 종목에 출전을 독려해주셨어요.” 2015년부터 능력 향상을 위해 기능대회에 출전, 3등, 2017년 2등, 올해 2018년 1등을 수상했다.

창업의 길은 힘들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2015년 직장을 그만두고 조그만 가게를 냈어요. 수선전문가예요. 하지만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직장을 다니려고 했지만 어린 아이들을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았고 도저히 적응이 어려웠어요. 다시 가게를 열었고 역시나 곧 닫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그의 수족이 되어준 재봉틀도 낡아 두꺼운 천을 박을 때는 여지없이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다른 이의 재봉틀을 빌려 겨우 기능대회를 마친 적도 있었다. 그러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YWCA 건물 앞 작은 창고를 개조해서 가게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다. 건물에 입주한 단체들이 많아 사람들의 드나들이 잦은 곳이어서 홍보하기에도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고 기쁘게도 2018년 JP 모간이 후원하는 <다문화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3월까지 컨설팅을 포함, 가게 운영에 필요한 것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당장에 낡은 재봉틀과 이별하고, 올해 추위와 내년 여름을 견뎌 내기에 필요한 냉난방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지금부터가 시작인 걸요

2018년 1월 <황나웃수선&리폼>을 오픈했다. 여성재단에서 열린 <다문화여성CEO워크숍>에도 참여하여 창업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들을 수 있었고 경영진단도 받았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지금까지 그가 직접 제작하여 판매한 의류와 가방, 휴대폰케이스 등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가게 안에는 그가 각종 기능대회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입힌 마네킹도 전시되어 있었다. 모두 다 수준급의 상품으로 손색이 없다. 처음 그의 바람대로 그의 수입은 가정경제에 충분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투항나 님은 수선리폼가게로 시작했지만 조금 더 큰 꿈을 꾸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 온 다문화여성들의 창업 분야는 대개 카페 혹은 요식업이 많다. 이번 JP 모간 지원사업에 선정된 10명 중 양재분야는 투항나 님이 유일했다. 도전하기 힘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그는 자신의 브랜드를 가진 전문 의상디자이너로서 더 성장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다른 기능대회에 출전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았다. 몇 번씩 가게 문을 열고 닫는 동안에도 그는 남다른 재능을 계속 갈고 닦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에게 다시 창업이라는 도전이 주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지원군도 곁에 있다. 투항나 님의 멈추지 않는 도전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언젠가 멋진 디자이너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해본다. **W**

JP모간 후원,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8 다문화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은 통번역업, 외식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총 10개 업체 다문화여성 CEO들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 및 리더십 고취를 위한 창업가 리더십교육과 다문화여성들이 운영하는 한 사회적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 등 2019년 3월까지 업체별 개별 컨설팅과 솔루션 지원 그리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시대, 여기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위하여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in Daegu)는 이주여성들의 한국 정착을 돕고 지역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온 단체이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의 오랜 파트너이기도 하다. 최근 10주년 생일을 맞은 센터의 강혜숙 대표와 사업을 담당한 이한결 활동가를 만났다.

10주년을 축하드린다. 설립배경과 주요 활동을 소개해주신다면?

2008년 창립 당시, 대구에는 이미 3군데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폭력,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6~7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을 여전히 겪고 있었다. 기존 센터들은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으로 인한 가족 유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우선적으로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강화에 중점을 둔 단체가 절실했다.

현재 한국어교실을 필두로 소모임과 정책 연구 등을 일상적으로 하고 부설기관으로 상담소와 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도입국아동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예비학교인 레인보우스쿨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한국어를 익힌 후 일반학교로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하는데 대부분 검정고시를 선택한다.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



센터는 몇 년 전부터 난민이주여성들의 의료지원과 생계를 돕고 있다. 난민중에서도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여성이다. 최근 제주도 난민 문제가 이슈화되기 전부터 이분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우리조차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난민인권센터에 자문을 구해가며 이들을 돕고 있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우리 센터는 캄보디아는 물론 베트남 등 10개 지역 4~500명의 대규모로 모국방문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또한 캄보디아 이주여성이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캄보디아 회원들이 많다. 재단이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경험치가 있던 센터에 영남지역 파트너단체로 참여를 제안해주었다. 이 사업은 돈이 없어서 친정방문을 하지 못한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이중 언어를 하는 자녀들이 엄마 나라를 방문하고 다녀와서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프로그램이다.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부부평등문화’를 자각할 수 있는 부부프로그램이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부부생활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타국에서 정착하여 생활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배우자의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주여성이 한국에 오면 시부모와 사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모두 한국어를 사용하면 아내의 소외되고 낮은 환경속에 놓인다. 반면에 캄보디아에 가서는 그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된다. 한국남편들은 자기를 속이는 느낌을 받는다며 부부가 결국 싸우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술을 마시고 함부로 하기도 하는데 그 대상이 아내나 장인, 장모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캄보디아를 방문하기 전에 아내는 아내끼리 남편은 남편끼리 부부가 평등하게 의사소통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내들도 너무 만족해한다. 더불어 센터는 이 사업에 캄보디아 활동가가 통역에 합류하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우리 센터가 이주여성분야 전문단체로 많이 알려졌다. 캄보디아에 다녀온 후, 상담할 일이 생기면 연락을 해오기도 한다.

**활동가 이한결 님도 이번 모국방문에
참여하였다. 개인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나?**

이번에 한부모 가족도 참가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캄보디아에서는 이주여성들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이주여성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소소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

되었다. 같은 여성으로서 연대감도 느꼈다. 신주민으로서 나도 모르게 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문득 자각하기도 했다. 현지 가정방문 때, 캄보디아 가족들이 극진히 환대해주셨다. 한국 사회도 이주민에 대한 환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2018년 미투운동이 사회전체와 여성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관련한 활동을 소개해
주신다면?**

대구지역도 미투운동이 활발했다. 세월호 사건과 더불어 이번 미투도 전국적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주여성관련 단체들이 함께 국회에서 미투의 사각지대, 미투조차 외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이주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29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현황과 지원 방안>이라는 토론회를 통해 미투운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에게 체류권 보장과 전문적인 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W**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을 통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부모-자녀 간의 건강한 상호 작용과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2016년 첫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시작해 총 57가정, 208명이 참여하였다.

‘안전’하고 ‘든든’한 이 문으로 들어오세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듬는 안식처이자 지역인권 운동의 구심역할을 하는 곳, 정읍과 김제에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부설로 운영하는 곳, 한테를 마다하고 나가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곳, 사랑과 용기, 그리고 강단이 흘러넘치는 이곳의 가장 큰 꿈이자 숙원사업은 바로 ‘이사’였다.

쉬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소개만 나열해 놓자면 할 일도 많고 품도 넓은 곳 같은데 숙원사업이 겨우 ‘이사’라니 말이다. 이곳은 전주성폭력예방치료센터,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에 선정됐다. 앞서 언급한 센터의 소개가 허튼소리는 아니다. 전주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물론 이를 위한 법, 제도 개선운동, 성평등 확산운동, 상담 및 교육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약자를 대신해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데도 주저함이 없어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의 단골장소로 쓰인다. 그런 센터를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

가 바로 공간이었다.

문제는 안전이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오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지 못했다. 유일한 출입구는 낡은 나무문.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힘으로 열 수 있어서 늘 불안했다. 제대로 구획되지 않은 내부 공간이나 열기설기 세워놓은 가벽, 오픈된 상담 공간, 어두운 조명은 그 다음 문제였다.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곳이었기에 늘 불안했다.

“비영리 여성단체의 열악한 환경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태였어요. 보기에 좋은 공간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무조건 안전, 첫째가 안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가 꿈 아닌 꿈이었지요.” - 권지현 센터장

이렇다 할 지원창구가 없는 비영리 여성단체였기에 공간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10년 전 시에서 얼마의 지원금이 나왔지만

센터상황보다 더 열악한 피해자 보호시설을 개선하는데 모두 썼다. 일말의 아쉬움도 없었다.

“여기만 오면 아프다고 하던 내담자가 있었어요. 불을 안 켜면 무서울 정도로 어둡고 낡았거든요. 그 말이 이해가 가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센터보다 더 낙후된 환경에서, 밤낮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을 모른 척할 수 없어서 그쪽으로 지원금을 다 밀어줬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간문화개선사업은 정말 의미 있었죠.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센터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 준 거라고 생각해요.” - 조미연 사무국장

만약 공간문화개선사업이 아니었다면 센터는 영원히 공간을 변화시킬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언제나 여기보다 더 힘든 곳, 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열악한 공간을 직접 개선해주는 사업이었기에 늘 가장 뒤로만 미루어 두었던 센터에도 변화의 기회가 생겼다.

“온갖 물건과 서류를 있는 대로 쌓아두고 살았는데 정리수납컨설팅을 통해 정리하니까 수납은 물론 공간효율도 높아지더라고요. 조명도 밝게 교체하고, 사무실과 교육장, 상담공간이 분리되니까 동선도 깔끔해졌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출입문 교체로 안전을 확보했다는 게 제일 기뻐요. 공간개선문화사업 덕분에 비로소 센터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 든든해요.” - 권지현 센터장

공간개선 이후 유관기관 방문의 날을 맞아 센터를 방문한 어느 관사는 확 바뀐 센터 출입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 찾아 온 줄 알고 헤맸다며 웃었

다. 짧은 에피소드지만 변화 이전의 모습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되는 부분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힘없고 돈 없는 여성의 위치를 여성단체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은 그런 여성을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리모델링 기간 동안 여러 곳을 전전하다보니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어요. 열악하게나마 우리 공간이 있다는 게 소중한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니 너무 좋아요.” - 권지현 센터장

이사가 꿈이었던 전주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다. 이사 갈 날만 기다리며 버티던 이 공간에서 오래 기꺼이 머물며, 전에는 하지 못했던 연구와 개발사업도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꾸리는 데 한 몫을 단단히 할 생각이다. 늘 꿈꾸는 이들이 꿈꾸는 세상, 전주성폭력예방치료센터의 에너지를 직접 느껴보니 그 꿈같은 세상이 꼭 올 것만 같아 가슴 뛰게 기다려진다. **W**

글 이소망 작가 사진 오소영

공간문화개선사업은 2009년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후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여성시설과 비영리여성단체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의 변화를 통해 단체와 여성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2018년에는 10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중간 워크숍 진행**

지난 10월 18일, 서울시 구산동 일대에서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중간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여성활동가와 여성문화예술인이 선정이후에 활동한 내용과 향후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고 싶은 것들을 나누었다. 중간 워크숍을 통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할수록 더욱 풍부해지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은 여성주의 가치와 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역의 풀뿌리여성활동가와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 하반기 이화-유한김벌리NGO
여성활동가 리더십교육 수료식 진행**

12월 12일, 이화여대 ECC관 B 313호에서 하반기 이화-유한김벌리 NGO여성활동가 리더십교육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본 과정은 유한김벌리 후원으로 여성·시민단체의 여성활동가들에게 여성주의 관점으로 활동을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9주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 30명은 향후에도 네트워크를 이어가며 교육의 성취를 나누고, 앞으로 현장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짧은 여행, 긴 호흡 최종보고회 개최

<짧은 여행, 긴 호흡>의 최종보고회가 지난 11월 14일, 합정 프리미엄라운지에서 진행되었다. 총 52개 단체, 94명의 여성활동가들이 본 사업을 통해 쉽·재충전 여행을 다녀온 후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여성활동가들이 올 한해의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여행의 기쁨을 나눴다. 2004년도부터 시작된 <짧은 여행, 긴 호흡>(후원: 교보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은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정체성과 비전을 재정립할 수 있는 휴(休)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열다섯 번째 진행되었다.



2018 하모니 프로젝트_드림업 2회차 진행

다문화가정 자녀와 풀무원푸드엔컬처 임직원이 함께하는 하모니프로젝트_드림업 2회차가 지난 12월 15일, 키자니아에서 진행되었다. 키자니아는 현실감과 생동감 넘치는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직업을 간접 체험하며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소방관이 되었다가 은행원도 돼보고, 연예인, 플로리스트, 한의사, NGO 활동가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내가 관심 있는 것,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멘토 선생님들과 고민을 나누었다. 하모니프로젝트는 풀무원푸드엔컬처 임직원이 멘토로 참여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유한킴벌리 여성NGO 장학사업
성공회대 실천여성학 콜로키움 진행**

2018년 11월 21일, 성공회대학교 미가엘관에서 '제1회 2018 성공회대 실천여성학 콜로키움'이 열렸다.

'2018 성공회대 실천여성학 콜로키움' 발표자로 9기 졸업생 최란 사무국장(한국성폭력상담소), 10기 졸업생 바다위 팀장(여성인권센터 쉬고)이 참여했고, 토론자로 김주희 연구교수(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손희정 연구원(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이 참석했다.

본 사업은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하는 <유한킴벌리 여성NGO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 전공(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의 졸업생과 재학생을 잇는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현장의 경험과 이론들이 결합하고 접목되는 시간이 되었다.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2018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11월 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가족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전프로그램에서부터 하노이, 호치민 현지프로그램까지 행복한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나라 최초로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사업으로 시작하여 2013년부터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초점을 맞춰진행된 이 사업은 12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아쉽게도 올해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361가족, 총 1,324명이 외가를 방문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포럼,
<초고령사회, 건강한 미래사회 실현을 위한 기업의 역할> 세미나 개최**

(사)미래포럼 초고령사회 디자인 클럽 세미나가 11월 29일, 교보생명 세미나실에서 <초고령 사회, 건강한 미래사회 실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의 사회로, 한동희 노인생활과학연구소 소장이 기초발제를, SK하이닉스, 교보생명, 유한킴벌리, KB골드라이프케어, 라이나전성기재단 총 5개 기업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기업은 고령친화산업을 통한 수익창출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는 한동희 소장 발표와 더불어 이를 실천하고 있는 5개 기업의 사례는 참가자 모두에게 큰 시사점을 안겨주었다.

(사)대한간호협회 (주)민들레누비 (주)삼표 (주)인포뱅크(#0038 문자후원) (주)클리오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귀섭 강남식 강대인 강덕순 강덕주 강명숙 강명진 강미주 강민아 강범희 강병모 강병원 강보승 강석기 강성환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연조 강영숙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경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재진 강점숙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종호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지행 강진화 강진희 강태리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훈희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양YWCA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은옥 고은정 고재순 고재원 고주형 고지원 고현실 고희경 공명숙 공옥분 공태수 광숙희 광영선 광옥규 광은숙 광지혜 광현미 광혜경 광효정 광희환 교보생명보험(주) 구경애 구미경 구인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용 구춘자 구현주 구 회 국미애 국영자 국은주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다희 권명희 권미혁 권상진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민 권영선 권예은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환 권태정 권태혁 권택건 권현지 권혜영 권희숙 그린북공동체 기득여인회 길준상 김가는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민 김경자 김경혜 김경희 김공태 김광미 김광민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군태 김규태 김근아 김금혜 김기선 김길진 김나리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현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희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만환 김명동 김명란 김명화 김명환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문정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화 김미희 김민경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분 김상숙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식 김선혜 김선환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열 김성태 김성환 김세라 김세화 김세희 김소양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술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용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영 김순열 김순영 김순옥 김순자 김순정 김시은 김시진 김아라 김아리 김아현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연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근 김영남 김영래 김영룡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순 김영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희 김영호 김용 김원경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관 김용남 김용수 김우술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유미 김유관 김윤경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상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레 김이슬 김익자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재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현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은 김정아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준순 김종주 김주연 김주환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숙 김진용 김진옥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춘희 김춘희 김춘희 김태식 김태순 김태연 김태연 김태욱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영 김한성 김한수 김해영 김해욱 김행인 김향미 김현근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형기 김형성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옥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기 김홍자 김황식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

나성주 나영미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남경애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현준 노형수 노혜련 노혜진

㉢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대구북구여성회 도금희 도이현 동고은 동서식품(주) 두석호

㉣

롯데카드포인트기부자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연규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

마경희 마선자 마소연 마정운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는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난하 문미란 문병윤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원 문숙남 문시윤(문의식) 문영임 문영호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재용 문재호 문정근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미래포럼 민가영 민무숙 민욱기 민하영 민형태 민희진

㉥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광은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길자 박대근 박동철 박동숙 박동연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숙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령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영 박선희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미 박숙애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 박신영 박애경 박연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선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옥희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용희 박우영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레 박익수 박재길 박재식 박재욱 박정근 박정례 박정숙 박정애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배 박종순 박주근 박주연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현 박지호 박진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원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채용 박종순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우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홍희 박희옥 반정애 방윤혁 배기욱 배선혜 배선희 배성신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주원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은 백기덕 백영임 백미순 백선숙 백수정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진영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영태 변형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진수

㉦

사과나무치과의원 사단법인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동규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용자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서나라 서미희 서영미 서영애 서영현 서용원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수현 성정현 성형주 소옥녀 손만순 손병두 손병준 손순연 손갑구 손영숙 손이선 손재광 손진희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식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준호 송지윤 송진호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순 신미숙 신미순 신민자 신봉근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상태 신소영 신영미 신영혜 신에서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자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신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주 심정희 심진선 심창학 심현규 심현숙 심혜경

㉧

아모레퍼시픽 안경모 안기현 안덕남 안도연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산진 안선순 안선주 안성민 안성희 안세준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옥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용 안재철 안종희 안지현 안지환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미초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수옥 양은오 양익숙 양인숙 양재섭 양중화 양진숙 양태경 양현식 양현정 양후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임규숙 임미영 임서영 임선재 임태호 엘지인테리어여미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성신문 여성신문사 여성인권개선후원 여성환경연대 여진경 여혜숙 여효영

연미자 연세미치과(이미급) 연은희 연미화 연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자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숙 오미향 오비로 오성수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승윤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지섭 오지영 오준희 오혜린 옥근남 옥지영 옥천수 왕인순 우미숙 우복남 이상숙 울산여성안전화 원경석 원용걸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명종 유우선 유인숙 유보람 유신기 유선의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남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제동 유주영 유지영 유지은 유한길빌리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정 유화열 유한구 유희숙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말미 윤미리 윤미재 윤미연 윤산 윤선정 윤성희 윤속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영 윤홍준 윤희천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주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광희 이규석 이국화 이권명화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남희 이다은 이덕남 이덕중 이덕혜 이도형 이등선 이등선 이등현 이등훈 이등희 이라영 이명선 이명순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보민 이복순 이복찬 이산모자원 이상덕 이상민 이상영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진 이선영 이선옥 이선용 이선이 이성광 이성우 이성환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현 이성호 이소연 이소영 이소희 이송희 이수련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형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현 이순희 이슬기 이슬수 이쌍선 이애란 이애리 이양주 이연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순 이영실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영희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식 이용원 이용일 이용정 이우혜 이원규 이원식 이유경 이유림 이유진 이윤결 이윤성 이윤수 이윤숙 이윤재 이 은 이은수 이은아 이은명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은우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영 이재경 이재숙 이재순 이재원 이재진 이재한 이점무 이점구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정현 이정호 이재구 이재윤 이종수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홍 이주연 이주영 이주홍 이주희 이지수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진우 이창균 이창형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케이코리아유한회사 이택준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하늘 이하운 이하리 이하왕 이하락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숙 이현재 이현정 이혜경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란 이호선 이홍재 이희영 이호대 이효숙 이후영 이홍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에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임경수 임경숙 임경아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기수 임덕희 임성선 임성택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애 임연옥 임영남 임영미 임영주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춘근 임현주 임형근 임혜자 임호근

ㄷ

장경숙 장경철 장근창 장길용 장명련 장보람 장봉근 장석만 장소연 장소원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민 장옥현 장유경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이정수 장인선 장인정 장인화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민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철경 장필화 장혜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숙 장희연 재단법인삼익문화재단 재단법인풀무원재단 재단법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대근 전무영 전민경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우용 전원수 전원미 전은규 전은서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해경 전해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진 정경희 정구선 정근과 정길석 정길심 정도균 정동환 정란희 정문숙 정문자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화 정민수 정민주 정복주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선영 정선재 정성년 정성화 정씨는 정소영 정수진 정아현 정연보 정영숙 정영애 정영오 정영지 정영희 정용주 정원영 정원옥 정유연 정유진 정윤경 정윤석 정윤지 정윤현 정은경 정은선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화 정재숙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경수 정정숙 정정옥 정주리 정지민 정지용 정지은 정지훈

정진옥 정창근 정창남 정창수 정청자 정춘숙 정하선 정 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주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진 정효지 제명신 제승옥 조경미 제이피모간증권회사 조경애 조광형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 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완기 조용남 조윤세 조윤진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훈 조정의 조주은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진기 조춘이 조한혜정 조항래 조혁중 조 형 조혜연 조혜리 조혜영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효제 조홍식 주경은 주선숙 주식회사카페에 주식회사하나은행 주 영 주해숙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속자 지윤진 진규복 진상경 진소미 진양혜순범수 진태환 진현주

ㄹ

차경애 차승현 차연희 차세운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효린 채수경 채승권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천희란 최경수 청구치과의원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광식 최권호 최길석 최길용 최덕희 최동길 최명연 최민란 최민호 최병옥 최보승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성남 최성철 최승실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옥 최순민 최시현 최신아 최양호 최영산 최영옥 최영준 최옥숙 최은정 최원석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원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진희 최찬순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형숙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혜선

ㄴ

커뮤니티컨설팅꾸미

ㄷ

탁성희

ㄹ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ㅁ

하경란 하미선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태성 한국YWCA연합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자가이안협회 한국정리수납 협동조합 하향자 한명희 한문철 한미옥 한미정 한민숙 한상선 한송이 한송자 한승호 한애자 한영애 한영자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옥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한혜린 함영진 해피빈(쿵기부자) 허목화 허미영 허병란 허 선 허선이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선학 허유정 허윤정 허유희 허은실 허혜영 허준식 호성투어 흥기태 흥미리 흥미선 흥미정 흥미희 흥상옥 흥석보 흥성의 흥순명 흥순용 흥영애 흥영희 흥에서 흥예영 흥예진 흥용희 흥은숙 흥은희 흥인숙 흥정아 흥진선 흥춘택 흥현옥 흥현희 흥혜정 환경재단 황경연 황경주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성철 황수환 황연수 황윤옥 황은주 황은진 황인기 황인섭 황인의 황정혜 황주연 황주의 황준협 황진택 황훈영 희망우상

이름이 누락된 기부자님은
나눔기획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기부자명단 관련 문의
나눔기획팀 02-336-6463

수입



- 기업지정기부금 70.9%
-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1.3%
- 여성건강지원기부금 3.3%
- 특정명의기금 1.2%
- 운영후원금 4.1%
- 기타수입 9.2%

(단위: 원)

항목	내용	금액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2,272,641,045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기부릴레이 기부	362,221,095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여성건강지원기부금	해피빈	105,929,200
	카드포인트 기부 등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05,929,200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고 이종욱박사 추모기금	38,850,000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131,787,636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SOS상환기금 등	292,370,323
총 수입		3,203,799,299

선수금 내역 : 유한킴벌리, 동서식품, 교보생명

지출



- 모금사업비 1.2%
- 배분사업비 71.8%
- 홍보사업비 1.2%
- 연구사업비 0.5%
- 경상비 11.8%
- 시설비 0.6%
- 이월액 12.9%

(단위: 원)

구분	항목	내용	금액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39,799,545
		1.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고유 목적 사업비	배분사업비	개인모금	2,299,645,390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서울모금회-365MC)	
		2. 소외여성 empowerment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다문화아동외가방문지원사업(삼성생명, 공동모금회-하나금융)	
		봄빛장학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통합헬스케어(칼막스재단)	
		양육미혼모행복만들기(이케이코리아)	
		여성장애인모성보호사업(고 이종욱박사 추모사업)	
		하모니프로젝트(ECMD)	
		다문화여성창업지원사업(JP Morgan)	
		3.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 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실험프로젝트-짧은여행·긴호흡(교보생명)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36,859,362	
연구사업비	여성회의	17,393,110	
운영비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77,794,160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7,437,062
		이월액	414,870,670
총 지출		3,203,799,299	

Pulmuone
플무원푸드엔컬처



요즘은 이런食

영양균형. 식물성단백질. 참좋은선택.

20by20

2020년, 20만 명의 여성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의 약속, 2020년까지 20만 명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아모레퍼시픽은 2020년까지 20만 명 여성의 건강과 웰빙, 경제적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책임 있는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여성과 그 가족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실현한다.' 는 사회공헌 소명 아래 여성, 자연생태, 문화 3개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